

광주시·전남도 '바이오 미래산업' 확보 맞손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맞춰 신약·AI기반 의료기기 개발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상생 과제 중 하나인 '바이오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0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전남 상생협력과제인 '광주·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전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당위성과 조성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내에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보고회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화순군,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관계자 및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충북 오송과 대구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2곳을 중심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과 지역 수요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는 의료산업 및 인공지능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첨단지역 의료특화단지' 내에 AI기반 융복합 의료기기 인프라를 갖추는 등 초광역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남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부터 임상, 인증, 제품화까지 전주기 인프라를 갖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첨단바이오신약 개발 전진기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전남 백신산업특구(화순 소재)는 2002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과 2004년 화순전남대 병원 개원에 이어 2009년 ㈜GC녹십자 화순공장 유치 등 20여년 간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꾸준한 투자를 이끌어 낸 국내 유일 백신산업특구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현재 화순전남대병원을 비롯한 15개 지원기관과 33개 기업이 집적화된 산·학·병·연 연계형 바이오 클러스터가 구축돼 있다.

광주는 의과대학·치과대학 4곳과 한국광기술원 등 연구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등 지원기관으로 이루어진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미 국내 최대 치과클러스터인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와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구축

등 치과 중심의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을 특화했으며, 안과, 정형외과,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과 피부 의학을 결합한 신개념 고기능성 화장품인 코스메티케어 산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첨단재생치료제 개발,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국가 바이오파우드리 구축 등 바이오 혁신과 미래의료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사업 등을 담은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한 점도 호재다.

광주·전남은 지역 내 바이오·의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소규모 공간집약형 연구개발단지 특화한 '강소형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부담을 최소화 하는 전략도 마련 중이다.

사·도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은 향후 100년을 이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손잡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노후차 매년 저감장치 지원 광주시, 내달 10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올해 약 9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매년 저감장치(동시저감장치 포함) 285대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차량 최초등록일이 2001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사항에 적합한 차량이면 된다. 또 환경부 보조금 지급 이력도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250만~58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장치 가격에 따라 27만~65만원이다.

신청기한은 3월1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이메일, 등기우편(광주시 대기보전과 노후경유차매연저감장치 담당자 앞)으로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교과서에 마한사 확대 반영을"

김영록 지사, 국가교육위원장에 고대 해상왕국 고증 수록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0일 정성 필암서원 춘향제례 봉행에 참석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마한 역사 수록 내용 확대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국회의원, 이재양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백 필암서원 도유사 등이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역사 교과서에 가야는 3쪽 분량으로 소개돼 가야사에 대한 인지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영산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 해상왕국 마한은 단 3줄만 기록됐다"며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 객관적으로 고증 및 복원된 마한 역사를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고교 교과서에 영산강 유역 마한의

독창적 문화의 산물인 아파르트형 고분형식과 웅관묘, 금동관, 금동신발 등의 사진과 내용, 삼국을 비롯한 중·일 및 주변 국가와의 대외관계를 소개하는 내용을 확대 수록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배용 위원장은 마한 역사 소외에 공감하며 "고대 마한 역사의 방대함을 알고 있으므로, 마한사 수록 내용 확대 반영을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앞으로 전남도에서 마한역사 고증 및 복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마한 역사의 교과서 확대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마한사 교과용 인정도서 편찬을 위해 기초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에 784억 투입

인력난 해소·자연재해 대응 등 지역 특성 맞는 21개 사업 추진

전남도는 올해 어업 기반시설, 어선원-어선재해 보험, 유해생물 구제 등 21개 사업에 총 784억원을 들여 어선어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어촌사회 노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어선 규모, 양식 형태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 기반시설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분야별로 어업 기반시설에 190억원을 투입해 인양기와 부잔교 시설을 조성한다. 인양기는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어선의 육지 인양을 통해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평시 전복,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과 해상가두리 시설물 등을 어선에 싣고 내릴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부잔교는 어촌 도서지역 소형 선박 접안시설로 어업인 승하선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기반 시설이다.

또 303억원을 투입해 어선원과 어선의 재해보험을 지원, 예상치 못한 사고에 따른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는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조업활동 중 재해를 입으면 어선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책임을 해결

하도록 돕는다. 어선 재해보험은 어업인의 중요한 생산 수단이며 생활 터전인 어선이 해상사고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어업에 복구하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 조성과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7억원을 들여 불가사리, 썩, 해파리 등 유해생물 구제사업을 추진, 수산 자원 번식·보호 및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다.

박영재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어촌의 근로여건 개선 및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생애별 복지정책 강화 '장애인친화도시' 도약

제2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수립...4년간 1580억원 투입 맞춤 일자리 740개 창출...복합수련시설 등 인프라 구축

광주시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장애인친화도시' 도약에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4년 간 1580억원을 투입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제2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2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시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 정책 설계를 통해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장애인 친화 생활환경 조성 및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 스마트 장애인복지 인프라 등을 구축한다.

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간 1580억원을 들여 '삶에 행복을 잇는 장애인친화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권친화공동체 조성 ▲장애인 문화·교육·체육 기반 구축 ▲장애

인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유형별 지역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 42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장애인 취업 지원 및 관리 중심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맞춤형 일자리 740여 개를 창출하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기관 컨설팅을 비롯한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한다.

또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통합적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보호종로 장애아동과 장애 청년의 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조기 개입 원스를 통한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 등 장애인 권익보장기구 6개를 설치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 확대도 돌봄 부담도 줄인다. 광주시는 장애인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체육 기반도 새롭게 구축한다.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83곳을 운영한다. 특히 장애인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해 5개 자치구 장애인 실업 퇴장단을 지원하고, 장애인 이(E)-스포츠 등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무장애 정류장, 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확충하고 장애인들의 숙원인 복합 수련시설, 청각·언어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국정과제로 채택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 광주에서 태동해 전국화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과 함께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 반영구적 사용가능
- ▶ 관리의 간소화
- ▶ 낮은 관리비
- ▶ 자연과의 동화
-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